

# 주민과의 소통 행보 눈길

### 정현을 익산시장, 판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방문 등 중앙부터 잇따라 방문

정현을 익산시장이 정부 기관과 기업들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정 시장은 핵심 산업과 기업 수도권 공공기관 등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정 시장은 지난 24일 판교 경기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해 테크노밸리 운영 현황을 살피고 국내 벤처 1세대 기업 다산그룹 남민우 회장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에서 익산형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익산형 IT밸리 구축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앞서 시는 다산그룹과 원광대,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약을 맺고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익산형 IT밸리 구축을 추진해 왔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탄탄한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정 시장은 다음날인 25일 경기고양에 위치한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방문했다.

정 시장은 4년 연속 노인 일자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만큼 지역 사업과의 해당 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시는 올해 전년 대비 31억원 증가한 428억원을 투입해 어르신들을 위한 다



정현을 익산시장이 정부 기관과 기업들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한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만천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국·소·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전에 나섰다. 이 자리는 현장에서 개최되는 전략회의로 시의 예산확보 노력을 알리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회의 이후 국·소·단장 등과 함께 직접 기재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방문해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주까지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격의없는 대화로 주민들이 제안한 현안이나 숙원사업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민원해결 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우리 시의 가장 큰 목표인 만큼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주요 현안 해결과 신성장동력 유치를 최선으로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철저한 논리개발 · 지속적 설득”

### 군산시,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점검

군산시가 오는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지난 28일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 주요 대상사업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70억원) △자율주행 상용차 보안 신뢰성 확보 기반조성(28억원) △산업을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136억원) △연도향로 대체 여객선 건조(37억원) △비응향 어항구 확장개발(25억) △리츠프라자호텔~지곡교회 도로확장(15억원) △군산진북대병원 건립사업(212억원) △국립수중고교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에타산정) 등 총 126개 사업을

중점 확보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보고회에서 중점 확보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반응,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로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현 정부에서는 2024년도 예산에 대해 건전제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부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논리 개발과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토대로 부처 예산이 확정되는 5월말 까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담당 공무원 및 국가예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배우 김성환 시·고향사랑 홍보대사 위촉

군산시는 지난 28일 군산 출신 배우 김성환씨를 군산시 홍보대사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성환씨는 향후 2년간 군산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홍보대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김성환씨는 군산 출신으로 1970년 TBC 공채 탤런트로 방송에 입문하여 연기와 배우와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군산 팡당보리축제 홍보대사’와 ‘전라북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다채로운 고향 사랑을 실천하며 군산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씨는 “홍보대사로서 앞으로 군산



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앞장서고 고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을 약속했다.

이에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향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홍보대사에 승낙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군산시와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산업 생태계조성에 최선을”

### 강소특구 육성사업 고도화 지원 제1차 기술 교류회 개최... 산업육성 지원프로세스 구축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의 혁신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 활동 일환으로 제1차 기술교류회가 지난 28일 군산 에이본 호텔에서 개최됐다.

기술교류회는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육성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내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혁신기관의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네트워크 활동이다.

이날 기술교류회에는 플라즈마기술 연구소,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과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인력개발원 등 주요 혁신기관 실무자들이

이 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2023년도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 설명 △혁신기관 공동 협업프로그램 실행 논의 △강소특구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사)전북산업융합원과 함께 강소특구로 지정된 이후 주요 혁신기관과 협력을 통해 특화분야 기술기업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왔으며, 3차년도인 올해에는 지난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발굴한 지원사업의 구체화로 강소특구 입주기업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사)전북산업융합원 나석훈 원장은

“전북 군산 강소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고도화에 앞장서기 위해 지역 내 대학과 연구기관 등 주요 혁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 장민석 단장은 “최근 새만금에 2차전지 관련 대기업 투자로 각광받고 있는 시점에서 군산 강소특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지자체와 참여기관들의 협업 플랫폼을 더욱 공고히하여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신중년 위한 일자리센터 공식 출범

익산시가 지난 28일 신중년을 위한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다.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는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작년 9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주도형 신중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39억원을 확보하고, 어양1차철교삼거리 상가동에 자리 잡았다.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일자리 전문직원 3명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해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센터



터 운영은 지난 3월 공모를 거쳐 (사)창업공유지원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신중년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재취업 프로그램운영으로 인성 2막 취업 성공을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관내 지역축제 연계 홍보 추진

군산시가 시간여행축제 홍보 및 축제 간 상생발전을 위해 관내 지역축제 기간에 맞춰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

먼저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앞에서 개최되는 팡당보리축제 기간 시간여행축제 홍보부스를 설치해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팡당보리축제장을 방문하면 축제 캐릭터인 지동이와 지영이, 축제 청년 서포터즈가 방문객을 반겨줄 것이며, 캐릭터가 그려진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또한 시간여행축제 대표프로그램 중 하나인 ‘모아모아 시간’을 체험관 형식으로 운영한다. 방문객이 휴대폰을 활용하여 NFC 또는 QR코드 인증으로 시간을 충전해 추후 시간여행축제 행사장에 방문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전 고객효과를 도모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 일제정비

군산시가 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및 일제정비를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물가 안정모범업소를 말한다.

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신청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으로, 다음달 19일까지 시청 지역경제협력과 방문 및 우편, 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등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평가(저렴한 메뉴개수, 가격, 이용편의도, 위생·청결 등)와 서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